

〈은애전(銀愛傳)〉의 서사적 특징과 창작 의도*

정 규 식**

차 례

1. 서론
2. 〈은애전〉의 서사적 양상
3. 인물에 대한 서사적 축소와 의미
4. 최정련 서사의 축소와 의미
5. 〈은애전〉의 창작 의도
6.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은애전〉의 서사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작품의 서사를 ‘사건 서사’와 ‘옥사 서사’로 구분하고 두 서사의 연관성을 통해 작품의 창작 의도를 살폈다. 사건 서사는 김은애와 안조이를 중심 인물로 최정련과 김양준 등이 주변 인물로 등장하는 서사이며, 옥사 서사는 정조를 중심으로 대신 채제공, 현감 박재순, 관찰사 윤행원, 관찰사 윤시동 등이 등장하는 서사이다.

〈은애전〉은 이 두 서사가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두 서사는 유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기적으로 절묘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고는 이 작품의 서사적 특징과 창작 의도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김양준과 최정련 서사의 축소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은애 남편 김양준 서사의 축소는 열의 취약성을 통한 은애의 원통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은애를 무욕한 공모자 최정련 서사의 축소는 최정련을 벌하지 않은 정조의 판결을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이덕무의 서사 전략임을 밝혔다. 그리고 대신 체제공과 정조의 대립은 정조의 최종 판결에 대한 공론적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차원의 서사 전략임을 살폈다.

본고는 이러한 서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은애전>의 창작 의도를 고찰하였다. 이 작품은 정조의 명으로 이덕무가 창작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창작에는 정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덕무의 문학적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 이덕무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사면한 정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풍교의 정립이라는 교화적 메시지를 담기 위한 문학적 행위로서 <은애전>을 창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덕무는 이를 위해 은애를 최대한 억울하게 묘사하고 최정련의 죄가 가능한 한 모호하게 그려 정조의 최종 판결이 정당화되도록 서사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은애전>, 이덕무, 정조, 사건 서사, 옥사 서사

1. 서론

<은애전(銀愛傳)>은 1789년에 강진현(康津縣) 탑동리(塔洞里)에 사는 양가(良家)의 딸 김은애(金銀愛)가 같은 마을에 사는 노파 안조이(安召夷)를 살해한 사건을 정조(正祖)의 명¹⁾으로 이덕무(李德懋, 1741~1793)

1) 이덕무는 <은애전>의 서두에 '경술년 6월에 임금의 여러 옥안(獄案)을 심리하여

가 1790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덕무의 문집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를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일성록(日省錄)』 등의 공식 문헌에도 실려 있는데, 살인을 했음에도 왕이 특별히 사면을 했다는 점과 실제 있었던 일을 사실적 문체로 서사화했다는 점 등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 있게 논의해 왔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는 조선 후기 전의 소설적 경향을 논의하면서 <은애전>을 전개(傳系) 소설의 특징을 보이는 작품으로 변별하거나²⁾ 인상적이고 극적인 분위기 묘사 등이 여타의 소설적 표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내용의 전개 방식도 유기적 서사성이 중시되는 작품³⁾으로 평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들 논의는 ‘전과 소설’의 경계를 논하는 장르론의 입장에 있는 논의들이다. 또한 정숙한 여인을 무욕(誣辱)한 노파를 살해한 양가의 딸 은애를, 임금이 풍교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사면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정조의 윤상(倫常) 논리를 발현한 것⁴⁾이라는 논의 등은 본격적인 작품론 이전의 마중물 논의라 할 수 있다.

<은애전>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은 200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승희는 김은애 사건과 1785년 강원도 안협(安峽)에서 발생한 구씨(具氏) 살해 사건을 비교하면서 두 사건에 등장하는 여성의 최종적 존재방식에 따라, 여성을 세상 밖으로 내치거나 혹은 거두거나 하는, 조선시대 성 통제의 양상을 살폈으며,⁵⁾ 조도현은 이덕무의 작가

김은애(金銀愛)·신여척(申汝倜)을 살리는 데에 부치라고 명하고 인하여 전을 지어 내각 일력(內閣日曆)에 실으라고 명하였다.(庚戌六月 上審理諸獄案 命金銀愛申汝倜傳生 仍命撰傳載之內閣日曆)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하 <은애전>의 원문과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의 웹 사이트(<http://www.itkc.or.kr/>)의 ‘한국고전종합DB의 고전번역서’에서 인용하였으며 번역문의 경우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2)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02-109쪽.

3) 이동근, 『조선후기 전 문학 연구』, 태학사, 1991, 137-138쪽.

4) 이종주, 『북학파의 인식과 문학』, 태학사, 2001, 261쪽.

5) 유승희, 「유혹하는 몸과 정절의 경계-김은애」, 『여/성이론』 통권 20, 도서출판여

의식과 창작 동기 및 작품의 구조 분석을 살피고 작품을 통한 윤리 교육의 효용성 문제에 대하여 조명했다.⁶⁾

이후의 논의에서는 작품 분석과 함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은애전>이 왕의 명을 받아 창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논의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인 듯하다. 그 가운데는 작가 이덕무의 신분적 처지와 연관해서 해석한 논의도 있는데, 최천집은 서얼 출신 이덕무의 신분적 처지, 즉 서얼로서 임금의 곁에서 정치적 행위를 했던 상황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통해 왕에게 자신의 신분적 처지를 바로잡아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것⁷⁾이라 했으며, 홍성남은 이덕무의 <은애전>(1790년)을 비롯하여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김은애전>(1819년), 다산(茶山) 정약용(丁若庸, 1762~1836)의 기록(1822년), 월탄(月灘) 박종화(朴鍾和, 1901~1981)의 <은애전>(1938년) 등 여러 문헌을 대비하여 고찰하면서 작품의 창작 의도를 사도세자와 정조의 관계를 통해 해석하기도 하였다.⁸⁾

<은애전> 연구에 가장 많은 공력을 쏟은 연구자는 정인혁이다. 그는 <은애전>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살인 사건과 이덕무의 소설관, 그리고 방면 후 은애에게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논의⁹⁾를 비롯하여 작품의 서사화 방식과 의미를 고구하면서 실제 사건의 소설화 과정, 특히 사건의 인과관계나 인물의 내면 심리, 대화체의 등장 등을 바탕으로 허구적 서사화 양상을 살폈다.¹⁰⁾ 최근에는 강원도 안협의 구씨 살해 사건과 김은애

이연, 2009.

6) 조도현, 「<은애전>의 문학적 특징과 교육적 효용성」, 『어문연구』 70집, 한국어문연구학회, 2011.

7) 최천집, 「<은애전>의 창작 의도 고찰」, 『어문학』 131집, 한국어문학회, 2016.

8) 홍성남, 「<은애전> 연구」, 『시민인문학』 35호,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9) 정인혁, 「이덕무의 <은애전> 연구」, 『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보고사, 2011.

10) 정인혁, 「<은애전>의 서사화 방식과 그 의미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62집, 동

사건을 중심으로 소문의 단계와 배제의 윤리를 고찰하면서 이 두 사건은 조선 후기 사회의 체제 유지를 위해 이데올로기화된 윤리가 소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라 하였다.¹¹⁾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은애전>에 대한 기존 논의는 장르 성격, 작품의 서사화 방식과 의미, 방계자료를 통한 해석의 문제 등으로 정리된다. 특히 방계 자료를 통한 해석의 문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의 창작 의도인데 대개 정조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논의들이 많다. 이 작품이 왕의 명에 의해 지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시각은 중요하다.

본고는 <은애전>의 창작 의도는 이 작품이 지니는 서사적 특징을 감안하면서 논의해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은애전>은 실제로 있었던 옥사 사건을 소설적으로 구성한 작품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에 대한 서사화 양상을 고려하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위해 <은애전>의 서사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는 두 개의 서사가 존재한다. 김은애가 안 노파를 죽인 사건과 연관되는 서사,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과 연관되는 서사가 그것이다. 전자는 김은애(金銀愛), 안조이(安召吏), 최정련(崔正連), 김양준(金養俊), 노파 남편, 은애 어머니 등이 등장하는 ‘사건 서사’라 할 수 있고, 후자는 현감(縣監) 박재순(朴載淳), 관찰사(觀察使) 윤행원(尹行元), 관찰사 윤시동(尹蓍東), 대신 체제공(蔡濟恭), 임금 정조(正祖) 등이 등장하는 ‘옥사(獄事) 서사’라 할 수 있다. <은애전>은 이 두 개의 서사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긴밀한 서사적 연관성을 발현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은애전>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전환하면 흥미로운 지점이 확인된다.

악어문학회, 2014.

11) 정인혁, 「‘소문’과 배제의 윤리-<은애전>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4집, 한국고소설학회, 2017.

은애 남편 김양준과 은애의 무욕에 동참한 최정련에 대한 서사적 축소가 대신 체제공과 정조의 대립 및 정조의 최종 판결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건 서사와 옥사 서사의 교차점으로 기존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은애 남편 김양준의 역할과 최정련에 대한 처분이 상세하게 서사화되지 않은 것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특히 후자는 정조가 말한 풍교(風敎)의 정립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작품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창작 의도와 연관되는 작품의 해석 과정에서 면밀히 다루어야 할 부분임에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필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서사를 절묘하게 중첩시킨 이덕무의 창작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2장에서 <은애전>의 서사적 경계를 살피고, 3장에서 김양준과 최정련에 대한 서사적 축소 양상과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 체제공과 정조의 공론을 바탕으로 이덕무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은애전>의 서사적 양상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은애전>의 대략적인 서사 단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은애는 성이 김씨로 강진현(康津縣) 탑동리(塔洞里) 양가(良家)의 딸이다.
- 나. 마을에 안 노파라는 자가 있었는데 은애 어머니에게 구걸하면서 살았으나 은애의 어머니가 때로는 주지 않자 해치려는 마음을 먹었다.
- 다. 안 노파는 자신의 약값을 마련하고자 같은 마을에 사는 최정련(崔正連)과 결탁하여 은애와의 혼인을 빌미로 은애를 무욕(誣辱)하려 하였다.

- 라. 안 노파의 남편은 안 노파를 질책하였다.
- 마. 안노파의 무욕으로 성안에 소문이 퍼져 은애가 시집을 갈 수 없게 되자 마을 사람 김양준(金養俊)이 은애를 아내로 삼았다.
- 바. 계획에 실패한 안 노파는, 은애가 최정련과 불륜을 행했다고 소문을 퍼트린다.
- 사. 은애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밤에 안 노파의 집으로 가서 부엌칼로 안 노파를 살해하고 최정련도 죽이려 했으나 은애 어머니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 아. 현감(縣監) 박재순(朴載淳)은 은애를 심문하면서 은애의 일은 장하다고 여겼지만 법을 어길 수 없어 옥사(獄事)를 작성하여 관찰사에게 올렸다.
- 자. 관찰사 윤행원(尹行元)이 공모자가 있는지 심문하였으나 은애의 말이 한결같았다. 또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정련의 죄는 묻지 않았다.
- 차. 경술년(1790년)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죽을 죄수를 기록하여 올리는데 관찰사 윤시동(尹蓍東)이 은애 사건을 올리자 임금(정조)이 불쌍히 여기어 살리는 데에 붙이고자 하였다.
- 카. 임금이 형조(刑曹)에 명하여 대신과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신 채제공(蔡濟恭)은 은애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타. 임금은 섭영(聶榮), 해서(海西) 처녀, 장흥(長興)의 신여척(申汝偈) 등을 거론하면서 풍교(風教) 정립과 윤상(倫常)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은애를 용서한다.
- 파. 신여척 사건이 등장한다.
- 하. 논찬(論贊)이 등장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서사 단락 ‘가~사’가 사건 서사이고 서사 단락 ‘아~타’가 옥사 서사이다. ‘파’는 신여척 사건으로 <은애전>의 후반부에 부기된 별도의 이야기이고 ‘하’는 이덕무의 논찬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애전>에 관한 본격적인 서사는 사건 서사와 옥사 서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가~타’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사건 서사에서 주요 인물은 은애와 노파 안조이이다. 이 서

사의 핵심은 창가(娼家) 출신 안조이가 규중(閩中) 처녀 김은애를 무욕하면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다. 작품의 서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일찍이 쌀·콩·소금·메주 등을 은애의 어머니에게 구걸하고 꾸었는데, 은애의 어머니가 때로는 주지 않았으므로 노파가 문득 노하고 증오하여 해치려고 생각하였다.¹²⁾(밑줄 연구자)

인용문은 서사 단락 ‘나’의 내용으로 안 노파가 은애를 무욕한 이유에 해당한다. 안 노파는 원래 개창을 앓고 있었는데 비싼 약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최정련과 결탁하여 은애를 무욕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은애를 부정한 여인이라 소문내고 퍼뜨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던 은애는 같은 마을에 사는 김양준과 혼인을 했다. 이 당시 은애는 자신이 혼인을 하면 안 노파의 무욕이 사라질 것이고 소문도 잦아들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은애의 바람대로 흐르지 않았다.

처음에 정련과 약속하기를, 중매를 해주면 내 약값을 갚아주겠다고 하였는데 은애가 홀연히 배반하고 다른 남편에게로 시집갔으므로 정련이 약속대로 하지 않아서 내 병은 이때부터 심하여졌으니 은애는 참으로 나의 원수다.¹³⁾(밑줄 연구자)

인용문은 서사 단락 ‘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은애가 김양준과 혼인을 한 직후, 안 노파가 상황이 자신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최정련과 꾸민 계략이 허사가 되어버리자 동네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한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은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안 노파를 죽이고자 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욕적인 무욕에도 참고 견뎌왔

12) <銀愛傳>, ‘嘗丐貸米豆鹽豉于銀愛之母 母有時不與 嫗輒慍患 思欲中之’.

13) <銀愛傳>, ‘初與正連約行媒 報我藥直 銀愛忽畔而嫁他夫 則正連不如約 我病自此 飢 銀愛眞我仇’.

는데 이 순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 이 일은 안 노파와 최정련 둘 사이에서 벌어진 일임을 알 수 있다. 은애는 단지 피해자일 뿐이다. 더구나 은애가 배신했다는 이치에 맞지도 않은 말을 퍼뜨린 것이다. 그런데도 은애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소문은 사실과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다. 소문 자체가 진실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다.¹⁴⁾ 이로 인해 은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안 노파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결국 이튿날 밤, 1경(更)에 부엌칼을 들고 안 노파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죽이고는 최정련까지 죽이려고 하자 은애의 어머니가 그녀를 말려서 자수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은애전>의 사건 서사 전말이다.¹⁵⁾ 2년여 간,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아 왔던 여인이 자신을 온갖 방식으로 가해한 사회악적 존재를 살해한 내용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이정(里正)이 현감 박재순에게 고하고 박재순은 안 조이의 시체를 검시한 후 은애를 국문하여 논죄의 옥사를 작성하여 관찰사 윤행원에게 올리고 윤행원이 다시 아홉 차례에 걸쳐 공모자의 유무를 국문하였으나 은애의 진술이 일관되어 원래대로 처리하였다. 이후 해를 넘겨 경술년(1790)에 관찰사 윤시동이 나라의 경사가 있어 사형 죄수의 기록을 왕에게 올리게 되고 이에 정조는 은애 사건에 대해 대신 채제공에게 문의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금 정조(正祖)가 은애의 사면을 명하게 되었다. 이것이 옥사 서사이다.

잘 드러나듯, <은애전>은 이 두 서사가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서사적 양상은 기유년(1789) 5월에 발생한 살인 사건을 경술년

14) 정인혁(2017), 앞의 논문, 140쪽.

15) <은애전>은 대체로 입전 인물과 관련되는 사건 중심의 작품이지만, 은애가 안 노파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밤에 안 노파를 집으로 가는 과정, 어두운 방 안에서 안 노파의 형상을 살피는 모습, 자신을 칼로 찌르는 은애와 그런 은애를 오관한 안 노파의 대화, 은애가 안 노파를 찌르는 장면 등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소설적 성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1790)에 와서야 최종 처리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서사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서사를 하나의 작품으로 기록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사건 서사의 내용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은애전>의 사건 서사에서 주변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최정련과 김양준, 그리고 노파의 남편, 은애의 어머니 등이다. 그런데 <은애전>의 사건 서사에서 김양준과 최정련 관련 내용이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파의 남편과 은애의 어머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인물들로 서사적 차원의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은애 남편 김양준과 안 노파와 결탁했던 최정련은 사건 서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이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한 여인의 열(烈)과 관련되는 사건에서 이 두 인물의 서사적 비중이 축소된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최정련은 은애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사람이고 김양준은 은애의 남편이므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은애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은애전>에서는 이 두 인물에 대한 서사화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결국, 본고는 최정련과 김양준에 관한 서사적 축소가 사건 서사와 옥사 서사의 연관성을 추동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은애전>의 작품의 창작 의도는 이 작품이 지닌 전반적인 서사적 특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인물에 대한 서사적 축소와 의미

1) 김양준 서사의 축소와 의미

먼저 김양준과 관련되는 서사적 특징을 살펴보자. 작품의 서두에는 김

양준이 상당히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에 온 성안에 그 말이 퍼져서 은애가 시집을 갈 수가 없었는데, 오직 마을 사람 김양준(金養俊)이 그 명백한 것을 깊이 알고 드디어 장가 들어 아내로 삼았다.¹⁶⁾(밑줄 연구자)

인용문은 서사 단락 ‘마’의 내용이다. 인용문과 같이 김양준은 어느 정도 의로운 면이 있는 사람이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열과 연관된 소문에 휩싸인 당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양준은 소문의 진상, 특히 은애가 아무런 부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혼인을 했다. 그렇지만 <은애전>에서는 혼인 후에도 소문이 더욱 부풀려져 ‘거짓말은 더욱 퍼져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¹⁷⁾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한 여인이 지아비를 만나 혼인을 했고, 그 상대는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소문이 왜 이렇게 확산된 것일까? 이 과정에서 남편 김양준은 소문의 피해자인 자신의 아내 김은애를 위해서도 대체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이 지점이 바로 <은애전>의 사건 서사에서 감춰진 부분이다. <은애전>에서는 위의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남편 김양준에 관한 어떤 내용도 등장하지 않는다. 김양준이 작품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의 의로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후에는 고독하고 외로운 은애만 남는다.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열(烈)과 연관되는 정절, 지조, 절개의 문제는 남편, 가족, 가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덕무가 이를 예각화하지 않았다. 특히 은애 남편 김양준이 혼인 전에 은애를 맴돌던 소문의 진실을 이미 알고서 혼인을 시도한 의로운 인물의 면모를 보이고 있었는데도, 혼인 후

16) <銀愛傳>, ‘於是一城喧藉 銀愛嫁幾不得售 惟里人金養俊 深知其明白也 遂娶以爲室’.

17) <銀愛傳>, ‘誣言益播 尤不忍聞’.

은애를 위한 배려나 위로, 자애 등을 통해 거짓된 풍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나 행위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실 <은애전>에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함에도 서사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이 살인 사건을 처리한 옥사를 바탕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옥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면 이 작품은 옥사에 대한 기록물로 문학적 해석이 개입하기 힘든 텍스트가 되어 버린다. 이는 이 작품의 장르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방향이다.

이 문제를 문학 작품의 해석적 차원에서 보면, 김양준 서사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덕무의 서사 전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건 서사가 옥사 서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덕무는 정조의 정치적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최대한 잘 드러나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사건 서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은애의 원통함이 잘 드러나야 한다. 작품에서 안 노파의 악독함과 소문으로 인한 은애의 억울함은 어느 정도 확인된다. 하지만 한 여인이 무욕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은애는 김양준과 혼인을 하면 안 노파의 무욕과 소문이 사그라질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편도 많이 도와줄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인용문과 같이 김양준은 은애가 ‘명백한 것을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므로, 은애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고 감싸주며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 믿었을 수 있다. 하지만 작품에는 은애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어떤 서사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덕무가 <은애전>에서 김양준 관련 서사를 이렇게 처리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열은 가족이나 가문도 어찌할 수 없는 오로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혼

인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무욕을 참아야만 했던 은애의 지극한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점은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추측가능하다.

세상에서 살을 에이고 뼈에 사무치는 원한치고 정조를 지키는 여자가 음란하다는 무고를 당하는 것보다 더한 일은 없다. 잠시라도 이런 누명을 쓴다면 곧 천만 길 깊은 구렁이와 참호에 빠진 것과 다름없는데, 구렁이는 부여잡고 오를 수도 있고 참호는 뛰어서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이 누명이야 해명하려 한들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씻으려 한들 어떻게 씻을 수 있겠는가?¹⁹⁾(밑줄 연구자)

인용문은 정조가 은애의 억울함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열이 지닌 구조적 모순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된 구조 속에서는 법적 잣대만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억울하게 죽게 되는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정조가 김은애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열의 취약성과 그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훼손되는 모순을 적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것에 항거한 인물에 대한 의미 부여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덕무가 <은애전>에서 김양준 관련 서사를 최소함으로써 정조의 정치적 행위에 담긴 의미를 문학적으로 절묘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덕무는 정조의 정치적 메시지를 문학적으로 위임받아, 남편을

18) 이런 면에서 은애 어머니에 대한 서사적 소략화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 『正祖實錄』 31권, 정조 14년 8월 10일 무오 2번째 기사, ‘天下之切膚徹骨之冤 莫過於貞女之以淫被誣 乍冒此名 便溺於萬仞坑塹 坑可攀而登 塹可躍而出 此名欲下何以下 欲灑何以灑乎’. 이하 『조선왕조실록』의 원문과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웹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비슷한 가족과 가문, (지역) 사회가 침묵하는 동안 여성 개인이 혼자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열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이로 인한 은애의 원통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남편 김양준에 대한 서사화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일 것이다.

이덕무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과 가까운 북학파(北學派) 지식인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은애전>의 창작 시기와 비슷한 때에 연암 박지원이 <열녀함양박씨전>을 창작했다는 점이다.

바람 소리는 있으되 형체가 없다. 눈으로 보자 해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으로 잡히는 것이 없으며 허공에서 일어나서 능히 만물을 들뜨게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무형의 일을 가지고 들뜬 가운데서 사람을 논하려 하느냐? 더구나 너희는 과부의 자식이다. 과부의 자식이 오히려 과부를 논할 수 있단 말이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²⁰⁾(밑줄 연구자)

이 말은, 과부의 자식이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하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늙은 어머니가 한 말이다. 어머니는 왜 과부의 자식을 막으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소문이 좋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아들들을 앉혀 놓고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 은애를 사면해준 정조가 오버랩(overlap) 된다. 이 작품은 계축년(정조 17년, 1793년) 즈음에 연암이 지은 것이다. 이 때 연암은 안의(安義) 현감으로 있었다. 김은애 사건이 발생한 4년 후이며 이덕무의 <은애전>이 창작된 지 3년이 지난 뒤이다. 정조의 총애를 받았고 이덕무와 가깝게 교류했던 연암이 김은애 사건과 <은애전>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러므로 연암이 <열녀함양박씨전>의 창작함에 있어 정조의 뜻과 <은애전>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창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20) 박지원 지음/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상, 돌베개, 2007, 149쪽.

지금까지 <은애전>에 형상화된 김양준 서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김양준에 관한 서사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정조의 정치적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 열의 사회적 취약성을 통한 모순된 구조를 비판함으로써 은애의 원통함을 강조하고 열로 인해 억울하게 죽게 되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왕)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이덕무의 서사적 전략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옥사 서사가 사건 서사에 개입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서사화를 조정한 것으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다른 소설 작품과 차별화되는 <은애전>의 서사적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정련 서사의 축소와 의미

다음으로 최정련 서사에 관해서 살피고자 한다. <은애전>에는 김양준 서사와 비슷하게 최정련에 관한 서사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옥사 서사에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함에도 이덕무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해석이 필요하다.

주지하듯, 최정련은 안 노파의 무욕에서 은애의 불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며 안 노파의 모의에 적극 동조한 인물이다. 나아가 은애는 공초에서 최정련을 반드시 벌해달라고 했음에도 정조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정조는 은애로 하여금 정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까지 추가했다. 은애의 기질이 사나워 최정련을 가만 두지 않을 수 있으니 관리로 하여금 ‘최정련을 손대지 않겠다.’는 은애의 다짐을 받으라고 명한 것이다.²¹⁾

정조는 이러한 조치를 내린 이유를,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하므로 은애를 살리려다 도리어 최정련을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21) 『正祖實錄』 31권, 정조 14년 8월 10일 무오 2번째 기사, ‘招致銀愛於公庭 以更無敢犯手於正連之意.’

되기 때문²²⁾이라 했지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은애가 사사로이 움직여서 최정련을 해하는 것을 방지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지만 최정련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애 대신 국가가 최정련을 벌해야 마땅하다.

정조는 풍교를 정립하기 위해 은애 같은 사람을 사면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련에 대한 처벌이 명백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정련에 대한 처사 없이 어떻게 풍교가 서겠는가? 필자는 이 또한 이덕무의 서사적 전략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논의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주목하여, 최정련을 벌하지 않고 은애에게 정련을 손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게 함으로써 은애의 이미지가 노파를 살해한 잔인한 살인자로 변화되어 버렸다²³⁾고 지적하기도 하였고, 정조가 은애를 열협함의 귀감으로 남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은애에게 최정련에 대한 보복을 포기하겠다는 다짐을 받게 했을 것²⁴⁾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정조의 추가 조치와 은애의 이미지 변질 등에 대해서는 적실한 분석이지만 최정련을 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해석이다. 앞서 말했듯이, 은애가 사사로이 최정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공권력을 통해 국가가 최정련에게 죄를 묻는 것은 별개이다. 그러므로 <은애전>에서 이에 대한 서사화가 없는 것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은애전>의 내용만으로 볼 때, 최정련에게 죄를 묻지 않은 것은 우선 최정련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는 최정련의 나이가 대략 14~15세 정도로 등장한다.²⁵⁾ 따라서 은애의 공초를 담당할 관찰사 윤행원은 오직 정련은 나이가 어려 노파에게 오도(誤導)되었으므

22) 『正祖實錄』 31권, 정조 14년 8월 10일 무오 2번째 기사, ‘欲活銀愛 反殺崔漢 烏在其重人命之意乎’.

23) 정인혁(2011), 앞의 논문, 399-401쪽.

24) 정인혁(2014), 앞의 논문, 239-240쪽.

25) <銀愛傳>, ‘年十四五 冲穉娟好’.

로 내버려두고 묻지 않았던 것²⁶⁾이다.

또한 최정련의 범죄 가담의 불명확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은애전>에는 최정련 스스로가 자신이 은애와 사통했다고 소문내고 다녔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최정련도 은애를 마음에 두고 있던 터라 안 노파의 제안에 적극 응하기는 했지만 소문의 진원지가 최정련인지 명확하지 않다. 즉, 안 노파의 무욕에 대해 최정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이다.

<은애전>의 서사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는 이 두 가지, 즉 어린 나이와 범행 가담의 불명확성이라는 이유가 정조가 최정련을 벌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옥사를 다룬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다.

“제가 시집오기 전에 이웃에 사는 최정련(崔正連)이란 자가 남몰래 나와 간통하였노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안조이를 중간에 내세워 칭혼해 왔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자 최정련은 안조이와 함께 추잡한 말로 무고하기를 더욱 심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밤중에 칼을 들고 안조이의 집에 남몰래 들어가 먼저 그 목을 찌르고 다시 난자하였으며, 이어 최정련의 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저의 어머니가 말리는 바람에 그만두었습니다. 관청에서 최정련을 때려죽이기 바랍니다.”²⁷⁾(밑줄 연구자)

은애는, 최정련이 자신의 무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애전>과는 다소 다른 방향이다. <은애전>과 달리 최정련이 먼저 안조이에게 제안했고 그에 따라 안조이가 자신을 무욕했기 때문에

26) <銀愛傳>, ‘惟正連冲穉 爲媼註誤 置不問.’

27) 『正祖實錄』 31권, 정조 14년 8월 10일 무오 2번째 기사, ‘渠之未笄也 隣人崔正連者 揚言潛奸 使安女居間求婚 不許 及嫁他人 正連與安女 醜誣倍甚 故不勝其憤 乘夜持刀 潛往安女所 先刺其項 仍復亂刺 轉向正連家 爲渠母所挽而止 乞官府打殺正連.’

최정련을 때려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은애의 주장이므로 사실 관계를 따져야겠지만 <은애전>의 서사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은애전>에서는 은애가 주로 안 노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관장을 향해 ‘무욕한 죄에 대해서 관가에서 베푸 것이 없으니, 원컨대 관가에서 정련을 때려 죽여주소서.’²⁸⁾라고 하는 것이 전부이다. 안 노파는 자신이 죽었지만 공모자 최정련은 아무 벌을 받지 않고 있으니 죄인들에게 관가에서 베푸 것은 아무 것도 없으므로 관가에서 최정련을 벌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정련은 벌을 받지 않았다.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은 최정련이 은애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은애에게 끔찍한 일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죄가 가벼워 벌할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은 은애에게 중요하지 않다. 위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은애는 최정련을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을까?

주지하듯, 최정련의 범죄에 관해서는 <은애전>과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은애의 발언이 서로 배치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은애전>에서는 관찰사 윤행원의 처분에 따라 최정련이 안 노파에게 오도되었다고 하고 있다. 반면 『조선왕조실록』에는 최정련이 소문을 퍼트린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안 노파를 중간에 세웠다고 했다. 이처럼 최정련에 대한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데도 <은애전>에서는 최정련이 나이가 어리고 유순하여 안 노파에게 오도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이덕무의 서사적 전략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조가 최정련을 벌하지 않은 것과 이덕무가 <은애전>에서 최정련의 범죄 가담 정도를 모호하게 처리하면서 그에 관한 서

28) <銀愛傳>, ‘官無所施 但願官家打殺正連’

29) 이 부분의 원문은 ‘惟正連冲釋 爲姬註誤 置不問’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冲釋(충치)’라는 말은 ‘아직 유순하고 어리다’는 의미이다.

사를 최소화한 것이 서로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최정련을 처벌하지 않은 정조의 의중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공식적인 기록에는 최정련이 벌을 받았다는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정련을 용서한 정조의 의중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본고에서 중요한 것은 <은애전>의 서사적 특징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덕무 역시 정조의 최종적 판단에서 최정련에 대한 처분이 모호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애전>은 최정련에 대한 처분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은 정조의 판결이 부당하게 독해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은애전>의 사건 서사에서 최정련의 범죄 정도가 최대한 모호하게 처리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애전>에서 최정련 서사가 축소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김양준과 최정련을 중심으로 <은애전>의 서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덕무는 정조의 판결에 따라 두 인물에 대한 서사를 최소화하였다. 이는 옥사 서사가 사건 서사에 개입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서사를 재구성한 것으로 정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덕무의 문학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건 서사와 옥사 서사의 교차, 왕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창작자의 문학적 행위의 결합으로 탄생한 <은애전>의 서사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은애전>의 창작 의도

<은애전>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옥사 서사와 작품의 끝에 부기된 이덕무의 논찬(論贊)에 주목해야 한다. 옥사 서사의 핵심은 정조와 체제공의 입장이다. 관찰사 윤시동이 올린 옥사를 검토하던 정조

는 형조(刑曹)에 명하여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대신 채제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신 채제공(蔡濟恭)이 의논을 드리기를, ‘은애가 원한을 갚은 것이 비록 지극히 원통한 데서 나왔으나 살인죄를 범하였으니, 신은 감히 용서하는 의논을 할 수 없습니다.’하였다.³⁰⁾(밑줄 연구자)

인용문은 서사 단락 ‘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채제공의 말은 법적으로 합당하고 타당한 주장이다. 살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당시의 국법이다.³¹⁾ 채제공의 말은 이런 측면에서 정당하다. 하지만 정조는 최종 판결은 달랐다. 정조는 채제공의 의논에 대해 이렇게 비답을 내렸다. 서사 단락 ‘타’의 내용이다.

정녀(貞女)가 음란하다는 모함을 당한 것은 천하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다. 은애의 정렬로 한 번 죽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도리어 쉽지마는 그러나 한갓 죽기만 하면 실정을 아는 이가 없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중략)… 은애는 억지로 원통한 것을 참고 있다가 출가한 뒤에 그제야 원한을 갚았으니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은애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풍교(風教)를 세우겠는가? 특별히 사형을 용서한다.³²⁾(밑줄 연구자)

정조는 은애의 원통함을 말하면서 중국의 섭영(聶榮)과 해서 처녀의 사례를 통해 풍교(風教)를 세우기 위해 은애를 용서한다고 했다. 정조의 이 판결로 인해 <은애전>은 특별한 작품이 되어 버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작품은 연약한 한 여인이, 자신을 무욕한 이웃 노파를 살해하여 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실기(實記) 정도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30) <銀愛傳>, ‘大臣蔡濟恭獻議 銀愛報怨 雖出至冤 罪犯殺人 臣不敢爲參恕之論’.

31) 『正祖實錄』 31권, 정조 14년 8월 10일 무오 2번째 기사, ‘約法三章 殺人者死’.

32) <銀愛傳>, ‘貞女被淫誣 天下之切冤 夫以銀愛之貞 判一死顧易爾 然恐徒死無人知也 …(中略)… 然銀愛電勉含冤至適人 方報怨則尤難矣 不宥銀愛 何以樹風教 特貸其死’.

높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판결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타당한 대신의 주장을 뒤엎는 절대 군주의 초월적 권력 행사로 읽힐 수 있다.

특히 정조가 은애를 사면하면서 신여척 사건을 거론한 것은 다소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신여척 사건은 과실치사에 가깝다. 신여척 사건은 여척이 순창을 살인할 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 다툼의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순창은 폭행 현장에서 죽지도 않았고 이틀 뒤에 죽었다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애전>에서는 ‘(여척이 순창의) 배를 차니 순창이 슬슬 기다가 이틀날 죽었다.’³³⁾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은애는 안 노파를 죽이려는 분명한 목적으로 부엌칼을 들고 가서 살인한 것이다. 두 사건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과정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정조는 은애의 사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여척 사건을 거론했던 것이다.³⁴⁾

이러한 상황에서 <은애전>의 작가 이덕무는 체제공의 의논과 정조의

33) <銀愛傳>, ‘遂踢其腹 順昌匍匐 翌日死.’

34) 이덕무가, 정조가 신여척 사건을 판결하면서 말한 이른바 ‘전기수 살인 사건’을 <은애전>에서 서사화 한 것도 상당히 이채롭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세상에는 왕왕 이처럼 가소롭고 맹랑한 죽음(大抵往往有孟浪死 可笑殺)’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존 논의에서는, 전기수를 살해한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은 소설 속 이야기지만 바로 서야 할 정의가 깃뻛히는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은 어떤 기개와 절의를 드러낸 것(정인혁, 2011, 앞의 논문, 393-394쪽.)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정조가 전기수 살인 사건을 언급한 것은 ‘죽인 자에 대한 의미 부여’보다는 ‘살인 사건의 우연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세상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소설 읽어 주다가 허망하게 죽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김순남의 죽음은 이런 류에 속하는 허무맹랑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덕무가 <은애전>에 이 부분을 소개한 것은, 은애에 의해 안 노파가 죽은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언표하고자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애의 살인은 의도를 가진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단지 맹랑한 죽음이 되는 것이며 은애의 사면은 더욱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덕무가 살인의 성격이 현격히 다른 신여척 사건을 <은애전>의 후반부에 거론하고 그 사건에 대한 정조의 발언을 제시한 것은 은애의 사면 정당화를 위한 서사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답을 나란히 배치하는 서사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정조의 정치 행위에 대한 일종의 공론적(公論的) 알리바이(alibi), 즉 왕의 사적(私的) 판단이 아니라 공적(公的) 차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논의라는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 있다. 정조의 최종적인 판결(비답) 이전에 대신 체제공의 의논이 제시됨으로써 정조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의 보편성을 간과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언표하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듯, 체제공은 사도세자를 목숨 걸고 지킨 인물로 정조가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사람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참고해도 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은애의 옥사가 국법으로 보면 어찌 털끝만큼인들 달리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마는, 그 정상으로 보나 나타난 사실로 보나 사건이 일어난 원인으로 보나 칼을 그와 같이 찔러댄 상황으로 볼 때, 죄를 추가할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정상을 참작해 용서할 만한 자료가 되는지 하는 문제는 일개 육관이 결정할 일이 아니니, 좌상에게 물어서 보고하라.”³⁵⁾(밀줄 연구자)

정조는 이 일은 실무 담당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좌상에게 물으라고 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좌의정이 바로 체제공이다. 그러므로 체제공이 법에 의거하여 올린 법적 의론을 정무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통치 행위로 삼았다는 것은 정조의 고도의 전략이다.³⁶⁾ 정조

35) 『正祖實錄』 31권, 정조 14년 8월 10일 무오 2번째 기사, ‘銀愛獄案 在法豈有一毫他疑 而其情也 其迹也 其事端之所由作也 其手勢之所以然也 爲添罪之階乎 抑爲原心之資乎 有非一獄官所可斷定 問于左相以聞.’

36) 안 노파를 살해한 은애를 사면한 정조의 진의(眞意)에 관해서는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논의 가운데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기억과 연관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정조의 정치적 상황이나 살인 사건과 관련되는 직간접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은애전>에 대한 서사적 특징과 창작 의도에 관한 논의이므로 은애를 사면한 정조의 진의에 관해서는 후속 논의

의 이러한 의중을 정확히 꿰뚫고 있던 이덕무 역시 놀라운 필치로 서사화한 것이다.

더불어 <은애전>은, ‘일개 옥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조선왕조실록』의 발언과는 다르게, 형조의 관원들에게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라고 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이덕무가 정조의 최종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이덕무의 이러한 서사적 전략은, 정조가 은애를 용서한다는 최종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법적인 문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민했고 주무 부서인 형조, 나아가 대신들에게까지 공론화시켰지만 그럼에도 결국 은애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정조의 덕과 위민적(爲民的) 정치 행위를 더욱 부각시키는 이덕무의 뛰어난 서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의도는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바이다.

금상(今上)이 성덕(聖德)이 너그럽고 어지시어 중한 죄수를 심리하면 몸이 아프고 병 있는 것같이 생각하시었다. 해가 늦어서야 어찬을 드시고 밤에도 촛불을 여러 번 잇대면서 정상을 캐고 의심스러운 자취를 상고하고 정의를 근본으로 하였으며 문득 사유하신 것이 거의 2백 인이나 되었다.³⁷⁾(밑줄 연구자)

정조의 사면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옥사의 배경과 살인의 동기, 은애의 기질과 안조의의 간악함 등³⁸⁾을 통한 사건 서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옥사 서사의 전개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죽은 살인 사건에서 사면의 정당성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의 처리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를 기대한다.

37) <銀愛傳>, ‘今上聖德寬仁 審理重囚 念若病癩 日汗進御膳 夜必燭屢跋 究情而卽于疑 考跡而原于義 則輒宥之幾二百人’.

38) 정인혁(2014), 앞의 논문, 240쪽.

은애의 안조이 살인은 분명히 의도적인 살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조는 채제공의 의논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 은애에 대한 정조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왕으로서 실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왕이라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덕무는 <은애전>의 서사적 구성을 위와 같이 함으로써 자칫 왕의 무리한 사면권 남용이라는 여론이 비등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면서도 정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중적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⁹⁾

이덕무의 이러한 서사적 전략은 정조의 정치 행위를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각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에 치우쳐서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을 묵과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건들의 인과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억울하게 옥살이 하거나 징벌을 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죽인 것 혹은 죽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의 억울함이나 죽을 짓을 저지른 피해자의 패악과 무도함에 대해 따지지 않고 죽고 죽임의 결과만을 법적 잣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음으

39) <은애전>을 면밀히 읽다보면, 기실 정조나 이덕무가 살인 사건과 관련되는 치밀한 사실관계 및 그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보다는 무욕을 당한 여인이 행한 살인을 매개로 왕의 정치적 행위에 무게 중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덕무는 <은애전>에서 살인 사건에 관한 최초의 수사 책임자였던 현감 박재순의 옥사(獄詞)에 대해 ‘은애를 장하다고 여기어 풀어주고 싶었으나 법을 어길 수 없어 옥사를 대충 꾸몄다.(悚而壯之 雖欲原釋法不可屈 彌縫諱詞)’라고 하였다. <은애전>은 사건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창작되었다. 이덕무 자신이 사건 현장을 직접 가지도 않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것도 아니다. 이덕무가 <은애전>을 창작할 때, 참고한 것은 이 최초의 기록을 모태로 한 그간의 다양한 자료들과 조정의 자료, 정조의 발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덕무가 최초의 기록을 ‘彌縫(미봉)’이라 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한 몇몇 인물들에 대한 서사화를 구체화하지 않은 것과 정조의 최종 판결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은애전>은 은애의 살인 사건을 매개로 왕의 정치 행위를 부각하기 위해 입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로써 백성들의 풍교를 바로세우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조는 ‘한갓 죽기만 하면 실정을 아는 이가 없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바로 은애의 석방을 매개로 풍교가 정립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덕무는 <은애전>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은애가 석방되면서 인신(人臣)은 충성으로 권하였고, 여척이 석방되면서 인자(人子)가 효도를 힘쓰게 되었다. 왜 그런가? 오직 충신만이 그 몸을 깨끗이 하고 오직 효자만이 그 아우를 우애하나니, 충효가 흥기되면 밝은 임금의 교화는 넓어지는 것이다.⁴⁰⁾(밑줄 연구자)

이덕무는 <은애전>의 끝머리를 위와 같이 적었다. 무욕을 받아 열이 훼손당한 자가 원통함에 사로잡혀 살인을 했지만 왕이 풍교 정립을 위해 사면하였으니 이로 인해 인신(人臣)의 몸이 깨끗해져 충(忠)이 흥기하여 결국 왕의 교화가 넓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여기에 드러나는 이덕무의 논리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무욕으로 살인한 사람을 사면한 것과 인신(人臣)의 충이 흥기하는 것은 연결 고리가 약하다. 일종의 논리적 비약이다. 그럼에도 이덕무는 <은애전>을 이렇게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은 사회악을 처단한 은애의 사적 행위보다는 그런 은애를 용서한 왕의 정치적 행위에 부치는 헌사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사건 서사를 매개로 한 옥사 서사 중심의 작품으로 정조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사회를 교화할 목적으로 입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은애전>의 창작 의도라 할 수 있다.

40) <銀愛傳>, ‘故銀愛釋而人臣勸忠 汝倜放而人子勉孝 何哉 惟忠臣潔其身 惟孝子友其弟 忠孝興而明主之化溥矣.’

5.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은애전>의 서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고찰하였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은애전>은 1789년에 있었던 살인한 사건을 정조의 명으로 이덕무가 1790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살인과 관련되는 실제 사건과 이를 바탕으로 옥사를 처리하는 과정을 그렸다. 본고는 이 작품의 서사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작품의 전체 서사를 ‘사건 서사’와 ‘옥사 서사’로 구분하고 두 서사의 연관성을 살폈다. 사건 서사는 김은애와 안조이를 중심 인물로 최정련과 김양준 등이 주변 인물로 등장하는 서사이며, 옥사 서사는 정조를 중심으로 대신 채제공, 현감 박재순, 관찰사 윤행원, 관찰사 윤시동 등이 등장하는 서사이다. <은애전>은 이 두 개의 서사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본고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은애의 남편 김양준과 은애의 무욕에 동참한 최정련에 대한 서사적 축소가 대신 채제공과 정조의 대립 및 정조의 최종 판결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사건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김양준과 최정련에 주목하고 이들에 관한 서사적 축소의 양상과 의미를 살폈다. 그 결과, 은애 남편 김양준에 대한 서사적 축소는 열의 사회적 취약성을 통해 은애의 원통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은애를 무욕한 공모자 최정련에 대한 서사적 축소는 최정련의 범죄 가담 정도를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최정련을 벌하지 않은 정조의 판결을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서사 전략임을 밝혔다. 또한 대신 채제공과 정조의 대립은 정조의 최종적 판결에 대한 공론적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차원의 서사 전략임을 살폈다.

본고는 이러한 서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작품의 창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이 작품은 정조의 명으로 1790년에 이덕무가 창작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창작에는 정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덕무의 문학적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 이덕무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사면한 정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풍교의 정립이라는 교화적 메시지를 담기 위한 문학적 행위로서 <은애전>을 창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덕무는 이를 위해 은애를 최대한 억울하게 묘사하고 최정련의 죄를 최대한 모호하게 그려 정조의 최종 판결이 정당화되도록 서사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靑莊館全書』

『朝鮮王朝實錄』

2. 논저

박지원 지음/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상, 돌베개, 2007.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유승희, 「유혹하는 몸과 정절의 경계-김은애」, 『여/성이론』 통권 20, 도서출판여이연, 2009, 199~215쪽.

이동근, 『조선후기 전 문학 연구』, 태학사, 1991.

이종주, 『북학파의 인식과 문학』, 태학사, 2001.

정인혁, 「'소문'과 배제의 윤리- <은애전>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4집, 한국고소설학회, 2017, 127~156쪽.

정인혁, 「<은애전>의 서사화 방식과 그 의미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62집, 동악어문학회, 2014, 227~262쪽.

정인혁, 「이덕무의 <은애전> 연구」, 『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보고서, 2011, 380~402쪽.

조도현, 「<은애전>의 문학적 특징과 교육적 효용성」, 『어문연구』 70집, 한국어문연구학회, 2011, 243~263쪽.

최천집, 「<은애전>의 창작 의도 고찰」, 『어문학』 131집, 한국어문학회, 2016, 157~188쪽.

홍성남, 「<은애전> 연구」, 『시민인문학』 35호,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137~163쪽.

<Abstract>

The narrative features and creative intention of <Eun-ae-jeon>

Chung, Ku-Si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arrative features of <Eun-ae-jeon> and to reveal the creative intention of this work. For this purpose, this work was divided into 'event narrative' and 'crime narrative' and examined the creative intention of the work through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narratives.

This article focused on the narrative reduction of Kim Yang-jun and Choi Jeong-ryeon among the narrative features of this work. As a result, the narrative reduction of Eun-ae's husband, Yang-jun Kim, emphasizes the simplicity of Eun-ae, and the narrative reduction of Choi Jeong-ryun, an insulting confession of Eun-ae, is made by Lee Deok-moo's narrative, which justifies the ruling of Jeong-jo, who did not punish Choi Jeong-ryun. It is a strategy. Also, instead, it was observed tha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vision of Chae je-gong and Jeong-jo was an epic strategy to provide an alibi for the final ruling of Jeong-jo.

Based on these narrative features, this paper considered the intention of creating works. This work was created by Lee Deok-moo in 1790 under the name of King Jeong-jo. Therefore, Lee's interpretation of Jeong-jo's political acts must be added to the

* Dong-a University.

creation of his work.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uthor, Lee Deok-moo, can be said to have created <Eun-ae-jeon> as a literary act containing edifying messages about the establishment of legitimacy and the establishment of Punggyo as a justification for the political act of Jeong-jo, who pardoned the person who killed the person.

Key Words: <Eun-ae-jeon>, Lee Deok-moo, Jeong-jo, event narrative, crime narrative

■ 논문접수 : 2020년 7월 31일

■ 심사완료 : 2020년 8월 16일

■ 게재확정 : 2020년 8월 24일